

금년 1~9월중 북한의 대 중·일 교역동향

1. 개 요

- 금년 1~9월중 북한의 대 중·일 교역실적은 10.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0.4% 증가하였음.
- 수출은 4.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.4% 증가하였고, 수입은 6.1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.7% 증가하였음.
- 대 중·일 교역수지 측면에서 1.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.
- ※ 동 기간중 남북교역실적은 4.9억달러로 전년동기 5.1억달러 대비 3.3% 감소하였는 바, 국내 내수부진에 따른 섬유류의 교역부진 등 거래성 교역이 감소한 데 기인

【'04. 1~9월중 북한의 대중·일·남한 교역실적】

(단위: 백만달러)

구 분	'03. 1-9월			'04. 1-9월			증가율(%)		
	총액	수출	수입	총액	수출	수입	총액	수출	수입
중 국	631	192	439	886	347	539	40.5	81.1	22.8
일 본	203	132	71	201	130	71	△0.9	△1.6	-
합 계	834	324	510	1,087	477	610	30.4	47.4	19.7

남 한	509	193	316	493	177	316	△3.3	△8.6	△0.1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-

2. 주요 동향

□ 국가별 동향

- 대 중국 교역실적은 8.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.5% 증가하였음.
-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1.1% 증가(1.9억달러→3.5억달러),

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2.8% 증가(4.4억달러→5.4억달러) 하였음.

【최근 3년간 1~9월중 북한의 대중 교역실적】

(단위: 백만달러)

구 분	수 출	수 입	총 액	증가율(%)
'02년	180	346	526	-
'03년	192	439	631	20.0
'04년	347	539	886	40.5

○ 대 일본 교역실적은 2.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.9% 감소하였음.

-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.6% 감소(1억3,200만달러→1억 3,000만달러)하였고, 수입은 0.7억달러로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.

【최근 3년간 1~9월중 북한의 대일 교역실적】

(단위: 백만달러)

구 분	수 출	수 입	총 액	증가율(%)
'02년	186	98	284	-
'03년	132	71	203	△28.5
'04년	130	71	201	△0.9

□ 품목별 동향

【 수 출 】

- 북한의 대 중·일 주요 수출품목인 수산물·철강·의류·광물성연료·광석 등이 금년 1~9월 중에도 수출을 주도하였음.

<대 중국>

- 수산물이 1억4,350만달러(전년 동기대비 78.0% 증)를 기록, 대중 수출의 가장 큰 비중(대 중국 수출총액의 약41% 점유)을 차지하였고
 - 그외 철강이 5,660만달러(86.0% 증), 광물성연료 3,650만달러(193.2% 증), 광석이 3,470만달러(282.5% 증)로 수출을 주도하였음.
 - ※ 수산물, 철강, 광물성연료, 광석, 의류 등 5개품목의 수출액은 3억 100만달러로 대중 수출총액의 87%를 차지
 - ※ 광물성 연료중 석탄이 3,480만달러로 95%이상을 차지
- 상기 5대품목 외에 아연이 1,000만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, 목재가 1,210만달러로 31.1% 증가하는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음.

<대 일본>

- 대일 수출 주요품목인 수산물이 5,22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.4% 감소한 것을 비롯, 의류가 2,280만달러로 27.0% 감소, 광물성연료가 740만달러로 8.0% 감소한 반면에
 - 전기기기는 1,47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.4% 증가하였고, 식용채소가 9백만달러로 33.1%, 철강이 720만달러로 124.7%, 알루미늄이 560만달러로 14.2% 증가하였음.

【 수 입 】

<대 중국>

- 광물성연료·육류·철강·전기기기·기계류 등 5개품목이 3억 1,960만달러로 대중 수입총액의 약 60%를 차지하며 수입을 주도하였음.
 - 광물성연료는 1억1,59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.8% 감소하였으나, 대중 수입총액의 가장 큰 비중(22%)을 차지하였음.

※ 광물성 연료중 원유는 7,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.5% 감소한 반면, 석유제품은 3,300만달러로 64.4% 증가하였음.

- 철강은 3,12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5.9% 증가하였고, 전기기기는 3,060만달러(1.1% 증), 기계류는 2,620만달러(45.9% 증), 플라스틱제품은 2,000만달러(25.8% 증)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및 공업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였고

- 그외 육류 1억1,560만달러(236.0% 증), 인조필라멘트 1,150만달러(29.6% 증), 채유용 종자·과실 1,000만달러(15.7% 증), 채소 610만달러(67.7% 증) 등 생필품의 수입도 증가하였음.

※ 식용육류 중 돼지고기가 1억1,070만달러(243% 증)로 대부분을 차지

- 한편, 곡물은 1,310만달러를 수입, 전년 동기대비 67.8% 감소하였음.

※ 쌀은 6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4% 감소, 옥수수는 500만달러로 66% 감소

<대 일본>

○ 차량·전기기기·기계류·양모·인조필라멘트 등 대일 주요 수입 품목이 4,870만달러로 대 일본 수입총액의 68%를 차지하였음.

- 화물차량은 1,66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.9% 증가, 기계류는 660만달러로 0.9% 증가한 반면

- 전기기기는 62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.6% 감소, 인조 필라멘트 450만달러로 3.9% 감소, 양모는 420만달러로 33.4% 감소하였음.

3. 평 가

- 금년도 1~9월중 북한의 대일 교역은 일본인 납치자문제 미해결 등에 따라 소폭 감소한 반면, 대중 교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.
 - 수출은 「7.1경제조치」 이후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른 공장·기업소의 생산 증가로 철강·광물성연료 등 1차산품과 수산물·임가공 의류 등이 증가하였고
 - ※ 특히, 중국의 건설 원자재 수요증가 및 가격인상에 힘입어 철강(86% 증)·아연(8,827% 증) 등 원자재 수출이 크게 증가
 - 수입은 생필품 등 부족한 물자공급 확보를 위해 식용·생활용품 등 소비재 위주의 수입에 주력했던 것으로 평가됨.
 - ※ 중국으로부터 식용육류(236% 증), 식용채소(68% 증), 플라스틱(26% 증) 등의 수입이 증가
- 향후 북한은 중국·남한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광산물 등 1차산품 수출과 소비재·생필품 위주의 수입 패턴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.